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더 소울

종교NEWS

고성발전을 위한 신앙인들의 활동

The Soul. 소울(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다.

“믿음 속에 화합을 일구는 소통의 신앙, 봉사와 희생으로 지역을 거듭나게 한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

남다른 봉사활동 문암1리 새문교회 송석규 목사 ... 황토방 · 방과후 교실 운영 ‘작은 소망’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사랑 나눔의 실천봉사를 하고 있는 죽왕면 문암1리 새문교회 송석규 목사가 화제다.

송목사는 매일 아침이면 아이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차량운행을 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곡 출신으로 2004년 새문교회로 부임하면서 고성과 인연을 맺은 송목사는 2005년부터 아이들을 위해 ‘새문문고’라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한다.

“처음엔 경기불황 등의 원인으로 민심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실된 사랑으로 주민들을 대하니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송목사는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한 집수리 및 식대 접을 하고, 마을의 각종 행사와 경로당의 어르신을 위한 차량지원 등 많은 사

랑실천을 하고 있다.

송목사는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 할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모든 종교를 떠나 모두가 하나가 될 때면 행복합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 문암 경로당을 찾아 쌀을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인근 부대를 방문해 장애인들에게 상담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송목사는 요즘 두가지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한다. 마을 주민을 위한 휴게실인 무료개방 황토방을 운영하는 것과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황토방은 마을 주민 누구나 손쉽게 만나 대화를 나누고 건강도 살피는 공간으로, 공부방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새문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와 연계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 도배와 장판교체, 전기배선수리 등 집수리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침술봉사 등 한방치료활동과 짜장면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로 잔치를 비롯해 이·미용봉사, 의료봉사, 정화활동 등 하는 일이 많다.

송석규 목사는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찾아 좀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종교칼럼

삶을 살아감에 있어

여름 내내 힘겨웠던 삶을 이겨내고 알알이 영글어가는 곡식들이 농부들의 땀방울을 씻어주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네 마음도 계절과 함께 조금은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한 토막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단정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거사가 찾아왔습니다. 거사는 부처님께 공손히 예배를 드리고 한쪽 옆에 앉아 여쭙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여야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덕망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벗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에 부처님께서 짧은 계승으로 답하셨습니다. “명예를 얻고자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거든 잘 보시하라, 복덕을 갖추고자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벗을 얻고자 하거든 은혜를 베풀어라, 그대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느니라.”

명예= 명예, 재물, 복덕, 좋은 벗은 세

상을 사는 이들이 참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명예란 꼭 이름을 크게 떨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빠른 승진, 사업에서의 앞선 성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 됨됨이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에잇 그 사람은 못된 인간이야” 하게 되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을 제일 덕목으로 삼고 있는데, 살생을 한다는 것은 자비심을 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진정한 명예는 자비에서 나오는 것이요, 자비로운 사람은 누구든지 추종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분은 누구입니까? 석가. 예수 등 가장 자애로웠

던 분이 가장 명예롭지 않습니까?

재물= 부처님께서 “재물을 얻고자 하면 잘 보시(普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쓰지 않고 잘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 곧 돈이란 쓰지 않고 모은다고 하여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기본적으로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을 갈 곳으로 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를 돕고, 발전적인 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빌게이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기아와 빈곤퇴치, 장학금 등으로 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 않습니까?

베풀지 않고 “나” 쪽으로만 이익을 거두어 들이면서 “나”의 욕심만 챙기게 되면 오래가지 않아 돈으로 인한 불행이 생겨납니다. 내 것만 챙기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 욕심이 나도 모르게 재물

그릇을 자꾸만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내 욕심껏 채우기도 전에 재물이 그릇 밖으로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재물을 잃는다는 것!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주위에 나누어주면 “나”의 재물 그릇은 그만큼 더 넓어집니다. 따라서 재물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허공보다 더 넓은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곧바로 나누어 줍니다. 우리도 형편 따라 능력 따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본래 욕심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연 따라 고루 평등하게 베풀어 줄 수 있게 될 때 “나”는 더없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복덕과 좋은 벗은 다음 신문에.



현담 스님
건봉사포교당 주지